

# 알타리(幹朶里)부 여진인 동청례(童淸禮)가문의 향화와 고증연구

가우신\*

## 〈차 례〉

1. 머리말
2. 동청례 가문의 족계
3. 동청례 가문에 대한 조선왕조 초무와 임용
4. 명나라가 향화 여진인 정책을 소홀히 한 이유
5. 맺음말

## [국문초록]

명나라 건국 초기에 동북 변방을 돌볼 겨를이 없이, 조선은 이 틈을 타 국경의 여진(女眞)을 대대적으로 초무를 시도하였다. 조선은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를 초무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동맹가첩목아의 분파들의 초무에 성공하였다. 이 분파가 바로 동어허리(童於虛里) - 동청례(童淸禮) 일맥이었다. 세종·중종·연산군 시기에 동청례 가문은 조선에 봉직하여 건주여진과 조선의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명나라의 여진 관계에는 불리한 작용을 하였다. 향화 여진인 동청례 가문의 귀속은 조선 세종 때 북진정책의 성공을 증명하고 있으며, 여진족 출신인 향화 여진인은 여진과 조선에서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존재로 조선 국경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여진은 내부 혼란과 불안정한 생활로 인해 안정적인 외부 환경이 필요하였고, 조선은 안정된 환경을 제공해 주었기에 동청례 가문은 향화인이 된 것이다. 그러나 향화 여진인의 신분은 명나라와 조선에서도 인정받지 못했고, 양국의 여진족에 대한 경계심은 계속되어 향화 여진인들은 경계인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주제어] 명조, 조선왕조, 향화 여진인, 동청례

\* 연변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과학학원 세계사 전공 박사과정

## 1. 머리말

조선과 여진의 관계에 대한 국내 학술계의 연구 성과는 풍부하다. 박정민은 여진인의 조선시대 수직과 복속 등에 관한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박정민은 조선시대의 대여진 관계를 정벌로 대표되는 강경책과 회유책으로 집약하고, 강경책보다는 주로 회유책을 채택하여 여진인의 내조와 향화를 장려했다. 이는 조선 여진인과의 관계에 효율적으로 작용하였으며, 조선은 향화 여진인을 활용하여 “조선 중심으로 한 외교질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sup>1)</sup> 또 다른 대표적인 연구자인 한성주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향화 여진인의 벼슬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중 조선 초 여진인이 받은 관직을 통해 여진인의 조명(朝明) 두 나라 소속문제를 제기하였다.<sup>2)</sup> 뿐만 아니라 입학성<sup>3)</sup> · 원창애<sup>4)</sup> · 이옥빈<sup>5)</sup> · 권영란<sup>6)</sup> · 이규철<sup>7)</sup> 등은 잇따라 향화 여진인의 수직 관련 논문 발표하였다.

중국 학자의 연구로는 장샤오보(張曉波)가 조선의 과거제도를 연구를 통해 향화 여진인의 입사와 봉직 및 향화 여진인 자손들에 대한 조선의 과거시험 허용 등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현재 중국학계의 향화 여진의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sup>8)</sup>

여진족은 중원왕조의 지배하에 생활하고 있던 민족으로서 여러 세대를 거쳐 조선에 거주하는 명나라 동북 국경 민족인 여진 알타리(斡朵里)가 되었

- 1) 박정민, 『조선시대 여진인 내조 연구』, 경인출판사, 2015.
- 2) 한성주, 「조선전기 女眞에 대한 授職政策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3) 입학성, 「17세기 전반 戶籍자료를 통해 본 귀화 野人의 조선에서의 생활 양상 - 蔚山戶籍(1609)와 海南戶籍(1639)의 사례 분석」, 『고문서연구』 33, 한국고문서학회, 2008, 95-128쪽.
- 4) 원창애, 「향화인의 조선정착 사례 연구 - 여진 향화인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37, 동양고전학회, 2009, 33-61쪽.
- 5) 이옥빈, 「조선시기 북방계 향화인의 원거주지와 이주시기 - 1609년 울산호적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96, 경남사학회, 2015, 119-156쪽.
- 6) 권영란, 「조선전기 대여진정책과 여진 귀화인 童淸禮」, 『역사와 실학』 62, 역사실학회, 2017, 77-115쪽.
- 7) 이규철, 「조선전기 향화 여진인의 활동과 경계인의 삶」, 『역사와 현실』 117, 한국역사연구회, 2020, 85-110쪽.
- 8) 張曉波, 「朝鮮王朝科擧制度研究」, 山東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20.

다.<sup>9)</sup> 여진족은 조선의 정권과 긴밀하게 내왕하면서 왕래와 충돌이 잦았다. 원나라 때 여진족은 조선 북부의 고려인과 어울려 살았고 조선왕조가 성립되면서 여진족은 국경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조선은 여진의 활동과 정치적인 동향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다.

반면, 같은 시기 명나라에서 여진의 존재는 변방의 약자 민족으로 인식되어 명나라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이들에 대한 기록도 미흡하였다. 조선은 명나라가 동북 변방을 돌볼 겨를 없는 틈을 타 여진족 초무를 “북진(北進)”의 계략에 포함시켰고, 이로 인해 향화 여진인이 나타나게 되었다. 명나라와 조선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향화 여진인은 양쪽 관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중에서도 동청례 가문의 활동은 조선시대 여진 정책의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 2. 동청례 가문의 족계

중국 역사서에 등장하는 “향화”는 원래 소수민족이 한민족에 통합되는 과정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소수민족이 한민족에 복종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조선왕조실록에서 향화인의 해석은 『숙종실록』에서 볼 수 있다.

이른바 향화인이란 자들은 옛날 중국 사람으로서 표류하여 우리 땅에 이르러 이내 우리의 백성이 된 자이다.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백성이 된 지가 몇백 년이 되었는지 모르는데, 늘 향화인이라 일컫고는 어업(漁業)을 하는 자나 농사를 짓는 자 모두 신역(身役)이 없다.”<sup>10)</sup>

9) 董万崙, 「朝鮮半島境內“靺鞨”人再研究」, 『世界歷仕』 4, 2001, 70~76쪽.

10) 『숙종실록』 권 34, 숙종 26년 10월 12일(辛未) “所謂向化人者, 古昔華人之漂到我地, 因爲我民者也. 入我地作我民, 不知幾百年, 而每稱向化, 水業者, 農作者, 並無身役.”

향화 여진인은 조선으로 옮겨 정착해 현지 사회생활에 융합한 여진인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중종실록』에 향화 여진인에 관한 정의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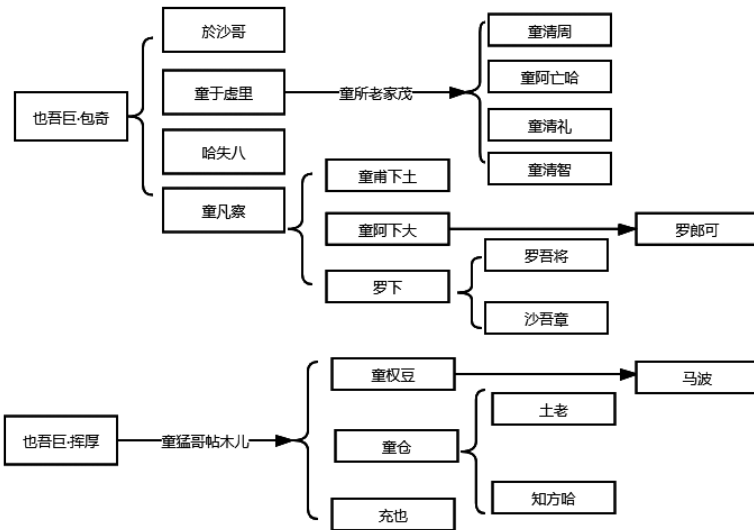
대저 향화에 있어서는, 그 어머니가 다 우리나라 사람일지라도, 그 아버지가 올라와 시조할 때에 낳은 자라면 자지 향화(子支向化)라 하나, 본토(本土)에 있을 때에 낳은 자가 또 시조를 청하면 기신 향화(己身向化)로 대우하는 것이 관례이다. 또 공로가 있는 자가 아니라도 스스로 시조를 원하면 허가하는 것이 관례이다. 하니, 전교하기를, 무릇 향화는, 본토에 살고 그 부모가 다 오랑캐인데 혹 변방의 공로가 있거나 청하여 향도(嚮導)가 되었다가 원하여 시조하게 된 자라면 기신 향화라 할 수 있겠으나, 김인복은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와 할미가 다 우리나라 사람이므로 본토에서 나고 자랐더라도 우리 편氓(編氓)인데 어찌 기신 향화라 할 수 있겠는가? 고사(古事)로 보더라도, 진(晉)나라 때에 흔히 다른 무리를 중국에 섞여 살게 한 것은 본디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우리 편氓인데, 어찌 기신 향화라 하여 노비(奴婢)를 줄 수 있겠는가? 정부(政府)의 낭관(郎官)을 불러 합좌(合坐) 때에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sup>11)</sup>

위 사료에 따르면 향화 여진인은 어머니가 조선사람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이지만 머물 의사가 있거나 조선에 귀화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본인이 향화 여진인이 된 경우는 국경에서 공을 세우거나 자진해서 귀순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향화 여진인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했다. 하나는 조선 경내에 거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에 귀속되는 것이다. 요컨대 향화 여진인은 공간적으로 조선에 거주하는, 사회적으로는 정치·경제·문화적 차

11) 『중종실록』 권 52, 중종 19년 12월 15일(乙巳) “大凡向化, 其母雖皆我國人, 若其父上來侍朝時, 所產者, 則謂之子支向化, 若其在本土時所產者, 又請侍朝, 則待之以己身向化例也. 且雖非有功, 若自願侍朝, 則許之亦例也.” 傳曰: “凡向化居于本土, 其父母皆胡虜, 而或有邊功; 或請爲嚮導, 而願得侍朝者, 則可謂己身向化也. 金仁福則其母及其父與祖母, 皆我國人, 雖在本土, 而產長, 乃我編氓, 豈可謂己身向化乎? 雖以古事見之, 晉時, 多使異類雜處中國, 固非美事也. 況此人, 乃我編氓, 豈可謂己身向化, 而給奴婢乎? 其招政府郎官, 合坐時議啓.”

원에서 또는 부분적으로 융합되어 현지에 들어와 조선인과 함께 생활하는 여진인을 일컫는다.

조선 회령지역에 남아 있던 향화 여진인은 건주 여진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함길도 도체찰사(威吉道都體察使) 이사철(李思哲)의 보고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두만강 유역의 4개 여진 부족이었는데, 당시 알타리는 실제로 범찰부가 서쪽으로 이동한 후 현지에 남아 있던 잔부로, 백여 가구가 여섯 개의 마을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sup>12)</sup> 그중 대표적인 여진족장은 동어허리-동소로가무(童所老加茂) - 동청례 일맥의 향화 여진인이다. 동어허리 일맥과 맹고티무르 사이의 혈연관계는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동명가첩목아와 동청례 가족과의 친연 관계도

명실록·조선왕조실록 그리고 학계의 연구성과에는 알타리부 여진주요 족장의 이름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아래 [표1]과 같이,<sup>13)</sup>

12) 『단종실록』 권 52, 단종 3년 3월 24일(己巳).

13) 董万崙, 「努尔哈赤先世家族谱牒」, 『滿族研究』 2, 1994, 17~27쪽.

[표1] 동맹가첩목아와 가족과 동청례 가족 이름의 기재

이름	중한 사료 및 학계의 기타 기록
於沙哥	알사합(幹沙哈)
童于虛里	어허리(於虛里), 아합리(阿哈里)
哈失八	오사합(吾沙哈)
童凡察	범찰(凡察)
童所老家茂	소로가무(所老加茂), 동속로첩목아(童速魯帖木兒), 동소로첩목아(童所老帖木兒), 소로가물(所老加勿)
童甫下土	보하토(甫下土), 복화독(卜花秃)
童阿下大	알사합(幹沙哈), 아하대(阿下大)
童阿亡哈	이망합(阿亡哈), 아망개(阿亡介), 아이망가(阿伊亡可), 아이망합(阿伊忘哈)
童猛哥帖木兒	맹가첩목아(猛哥帖木兒), 맹가첩목아(夾溫猛哥帖木兒), 맹특목(孟特穆)
童叔豆	권두(權豆), 관독(管秃), 동아고(童阿古), 아곡(阿谷)
童倉	동산(童山), 동산(董山)
土老	토로(吐老), 동토로(童吐老)

명나라 건국 초기에 여진인은 부족이 많고 흩어져 살아서 강대하고 통일된 민족을 형성하지 못하였고, 동북쪽 국경에서 생활하던 여진인은 후에 건주여진을 구성한 알타리(幹朶里)<sup>14)</sup>와 올랑합(兀良哈)<sup>15)</sup>부이다. 여진 알타리부의 족장 휘후(揮厚), 동맹가첩목아 부자는 부족을 이끌고 조선으로 이주하여 아무하 유역에서 20년 정도 정착하였다. 부족이 다시 올적합(兀狄哈)부의 위협과 침입, 그리고 조선의 기근이라는 이중의 압박에 편안히 지내지 못하여 다시 떠나 봉주(鳳州) 지역으로 이주하여 10년 이상 생활한 후 다시 아목하(阿木河) 유역으로 이주하여 한때 회령과 평저우 사이를 왕래하며 살았다.<sup>16)</sup>

1433년(세종 15), 동맹가첩목이는 명나라를 도와 여진 천호 양목답을(楊

14) 元代万户府中的幹朶里万户府, 『조선왕조실록』 中也作吾都里.

15) 元代万户府中的幹朶里万户府, 『조선왕조실록』 中也作火兒阿.

16) 刘小萌, 「明代女真血缘组织哈拉穆昆的动态分析」, 『社会科学战线』 4, 1990, 226~232쪽.

木答兀)을 초무했지만 오히려 살해당했고, 이를 “아무하의 변”이라고 불렀다. 동맹가첩목아가 살해당한 후 그의 아우 범찰은 명나라에 도둑 침사로 봉해졌다.<sup>17)</sup> “아무하의 변” 중, 동맹가첩목아와 그의 장남 권두(權豆)은 피살되었고 차남 동산(董山)은 납치되었다. 동산은 나중에 모련위(毛憐衛)의 도움을 받아 자유를 되찾고 아무하 지역으로 돌아갔다.

1437년(세종 19), 동산은 명나라에 요동 지역으로 이주하여 살 것을 청했다.<sup>18)</sup> 세종은 이를 알고 동산 등이 명나라에 귀화하는 것을 방해하여 명나라의 불만을 샀다. 명 영종은 세종에게 명을 내려 범찰과 동산 등을 모련위로 호송하고, 그리고 모련위 남북아한(郎卜兒罕)가 건주위(建州衛) 이만주(李滿住) 처소에게로 호송하도록 하였다.

명 영종 때, 여진 알타리부는 여러 차례 옮겨다니다 결국 명나라 경내의 요동지역인 파저강(婆猪江) 상류와 소자하(蘇子河) 일대에 정착했다. 건주위 이만주의 지원으로 범찰과 동산 등은 삼백여 호를 거느리고 서쪽으로 마저강 쪽으로 이주하였다. 떠난 사람은 대략 천 여 명정도로 추정된다.<sup>19)</sup> 동시에 일부 부족인원은 회령 일대에 남았는데, 여기에는 범찰의 형제 알사합·어허리·오사합와 그의 부하를 포함되었다.<sup>20)</sup> 학계연구를 살펴보면, 가구 수에 대한 견해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일부는 170여 가구, 일부는 80여 가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았다.

15년 전(1425년, 세종 7), 봉주에서 회령으로 이주한 1,000여 가구, 약 6,000여 명에 비해 3분의 2가 줄었다. 범찰과 동산 등이 데려간 것은 알타리부의 여진 중 그 족속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일 뿐이고, 원래 맹고티무르의 부하였던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 그 중에

17) 『명선종실록』 권 110, 선덕 9년 4월 13일(甲寅) “升建州左衛都指揮僉事凡察爲都督僉事，仍掌衛事，餘升秩有差……凡察等率眾往援殺賊有功故超升之.”

18) 『명영종실록』 권 36, 정통 2년 11월 12일(戊戌) “建州左衛都督猛可帖木兒子童倉奏，臣父爲七姓野人所殺，臣與叔都督凡察及百戶高早化等五百餘家潛住朝鮮地，欲與俱出遼東居住，恐被朝鮮國拘留乞賜矜憫，上勅朝鮮國王李禔俾將凡察等家送至毛憐衛，復勅毛憐衛都指揮同知郎卜兒罕令人護送出境，毋致侵害.”

19) 『세종실록』 권 89, 세종 22년 6월 26일(丙申) “臧吉都都節制使馳報：童倉，凡察等，與管下三百餘戶逃往婆猪江.”

20) 蔣秀松, 『“杨里人”考』, 『清史研究』 3, 1996, 86-92쪽.

는 범찰의 조카인 동소로가무도 있다.<sup>21)</sup>

1441년(세종 23), 회령의 알타리부 여진 약 20여 호가 남아 동소로가무를 따라 조선왕조에 복속하였고, 그 후손들이 향화 여진인이 되어 조선왕조로부터 북부 국경의 보안에 활용되었다.

동소로가무 등이 계속 조선에 남아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선조 동맹가첩목아의 지시이다. 1405년(태종 5), 동소로가무의 아버지 동어허리는 동맹가첩목아의 지령을 받아 조선왕조를 달래기 위해 회령에 머물렀다.<sup>22)</sup> 조선왕조실록에는 왕과 변관들의 만류로 인해 동맹가첩목아가 명나라에 귀순하는 것이 방해받을까 봐 걱정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진인이 용맹하고 싸움을 잘했으니 조선은 여진이라는 강력하고 안정된 국경의 변리(藩籬)를 잃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어허리의 끈질긴 견지인지 아니면 장시간의 이동 때문에 힘들었는지, 한반도에서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여진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는 믿음 때문인지 동소로가무는 아버지에게 범찰 등을 따라 명나라로 귀순할 것을 건의했으나 어허리는 조선에 머물기를 고집했다.<sup>23)</sup> 셋째, 범찰과 동산 등이 떠나면서 조선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1440년(세종 22), 범찰과 동산 등은 부족을 이끌고 건주위 이만주가 있는 곳으로 이주했다. 여진 알타리부의 세력 대부분이 명나라에 속하게 되면서 조선은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동어허리 등에 주목하게 되었다. 1439년(세종 21), 동소로가무는 조선에 상호군(上護軍)을 줄 것을 요청했으나 조선은 이를 거절했다.<sup>24)</sup> 그러나 1441년(세종 23), 범찰과 동산 등이 아목하 유역을 떠나자 조선 세종은 동소로가무를 임명하고 의관을 하사했다.<sup>25)</sup> 불과 2년

21) 『세종실록』 권 92, 세종 23년 5월 16일(辛亥) “引見僉知中樞院事童所老加茂教曰：今汝來朝，予甚嘉之。所老加茂對曰，臣叔父兄察逃竄，臣不隨去者，欲終身効力耳。臣部落遺種，不過二十餘戶。臣等統率，一從大國之命……臣欲入居深處，但恐國家未信，欲於會寧近地住居，隨都節制使防禦。”

22) 『태종실록』 권 10, 태종 5년 9월 13일(乙巳) “童猛哥帖木儿，同王教化的，入朝京师……印信则以弟於虛里权为万户，授之，留吾东站，待国家行下。”

23) 『세종실록』 권 90, 세종 22년 7월 9일(己酉) “於虛裏則其子所老加茂雖欲移去，堅執以爲不可，歸順誠心，終始不變。”

24) 『세종실록』 권 84, 세종 21년 1월 27일(丙午) “所老加茂，去年春授宣略將軍，今來請受上扞軍，然三品之官，亦不可輕易遽授，故但加威勇。”

25) 『세종실록』 권 92, 세종 23년 4월 17일(癸未) “授童所老加茂大護軍，賜衣冠鞍馬，許娶妻，仍賜第及



만에 수입 태도가 급속히 변한 것을 보면 범찰과 동산이 부족을 이끌고 떠난 것이 조선의 왕들이 여진을 부리는 행동에 새로운 도전과 위기를 맞았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조선은 여진부락의 족장에게 수직하고 조선에서 혼인을 허락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장려하였으며 금은과 그리고 생활용품을 하사하여 여진인의 마음을 달랬다.

### 3. 동청례 가문에 대한 조선왕조 초무와 임용

조선 건국 초 북부 국경지대의 상황은 급변했으며, 동청례 가문은 대를 이어 조선과 건주여진 사이에서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며 건주위 여진족장과 같은 혈통을 이어받았다. 조선과 국경에 접경한 여진에게 향화 여진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용한 것도 동청례 가문의 위상에 대한 이용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포섭 대상으로 발탁된 것이다. 특히 조선 성종과 연산군 때 동청례는 건주여진의 내부뿐만 아니라 조선의 “육진(六鎭)” 내외 지역 여진의 동향도 장악했다. 동청례 가문은 조선왕조 북방의 국경 안정에 크게 기여하면서도 여진의 속성을 버리고 조선왕조 “북진” 정책의 도구로 전락했다.

#### 1) 조선왕조의 초무 정책과 부합

동어허리는 조선왕조 수립 초기 조선왕조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여진의 족장 중 한 명으로, 원래는 여진 알타리부에 속했다. 휘후의 동부제(同父弟) 포기(包奇)의 아들이자 맹가첩목아의 이복동생이다. 맹가첩목아가 부족을 거느리고 조선에 살았을 때, 동어허리는 천호 직책을 맡았고, 조선 왕조에 몸을 의탁하였고, 세종은 그를 전호군으로 임명했다. 조선 세종은 회령진을 설치할 때 동어허리의 아들 동소로가무가 자진하여 가옥을 헐고 땅을

---

奴婢資財. 其從者, 亦賜冠帶.”

바치자 세종은 그의 성심성의 귀순을 염원하여 동소로가무를 의전사 판사의 딸과 혼인을 맺게 했다.<sup>26)</sup> 동청주와 동청례는 동소로가무와 조선의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과 차남이다.

조선은 북쪽의 “육진”을 설치하면서 국경의 두만강 유역에 사는 여진을 “변민”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sup>27)</sup> 조선의 명령을 수행하고 조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며, 이로써 여진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조선은 동소로가무가 그 역할을 하도록 선정하였다.<sup>28)</sup> 향화 여진인은 알타리(斡朵里)의 여진 동소로가무(童所老加茂)가 조선에 살면서 아내를 얻어 아들을 낳고 증추번리로 발탁되어 조선의 내란을 진압하는 데 활용하였다.

1453년(단종 1), 반란을 평정하기 위해 조선은 동소로가무를 비롯한 십여명의 여진 족장들이 파병하여 진압을 지휘하도록 명하였다.<sup>29)</sup> 또한 조선은 동소로가무와 여진의 다른 부족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때 그들의 처자와 자녀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등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sup>30)</sup> 동소로가무와 그의 아버지 동우허리는 조선으로부터 직책과 상을 받고, 부족을 이끌고 외족의 침입을 막아내고 국경의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동소로가무는 회령진에서 조선 여인과 결혼해 아들을 낳았고, 그 후손이 조선의 향화 여진인이 되었다.

1455년(단종 3), 함길도 도체찰사 이사철이 두만강 유역의 여진을 조사하였을 때의 보고를 살펴보면 동어허리가 죽은 뒤에도 그의 가계는 강성했고 동소로가무는 1등 부족의 족장으로 기록되어 있다.<sup>31)</sup> 여진 알타리부가 남방을

26) 『연산군일기』 권 50, 연산 9년 9월 18일(辛巳) “欲設會寧鎮而未得其地, 所老家茂自撤其家而獻地, 其功不細, 世宗重其功, 許嫁禮賓司判事女.”

27) 刘阳·金成镐, 「中朝图们江界河形成源流略考 - 以朝鲜王朝的东北方经营为中心」, 『史学集刊』 5, 2015, 60~67쪽.

28) 『세종실록』 권 92, 세종 23년 5월 13일(戊申) “僉知中樞院事童所老加茂詣闕謝恩…命爾爲酋長, 仍除僉知中樞院事, 兼阿木河等處都萬戶. 汝當體予之意, 往爾舊土, 管攝遺種, 使無動搖之心, 永安生樂.”

29) 『단종실록』 권 8, 단종 1년 10월 27일(庚戌) “爾等將皆爲我麾下, 宜具悉此意, 速捕殺澄玉, 以劾國家.”

30) 『단종실록』 권 2, 단종 즉위년 8월 23일(癸未) “前日童速魯帖木兒, 李貴也等, 射殺具州兀狄哈五名, 今兀狄哈等謀欲報復, 若有聲息, 請將妻子家財牛馬, 入行城以避. 會寧城底斡朵裏亦請之如此.”

31) 『단종실록』 권 10, 단종 3년 3월 24일(乙亥) “西指十三里江內往斡朵里中樞童所老加茂, 族類強盛,

전전하던 중 울적합부와 몽골 타타르와 싸워 큰 손실을 입었다. 이목하 유역에 머물며 조선에 의존하여 안정적인 생활원을 확보하는 것은 동어허리부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이 시기의 여진은 아직 통일되지 못하여 강한 민족으로 형성되지 않았고, 당시 더욱 강대했던 조선에 의지하기로 한 것은 여진의 족장이 내린 최선의 결정으로 이목하 유역 여진인의 안정과 강성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2) 관직을 맡고 조선왕조와 상부상조의 관계를 유지

조선은 북부의 영토확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두만강 지역에 거주하는 여진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지만, 둘 사이의 관계는 항상 우호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많은 갈등과 충돌 심지어 국경 분쟁까지 이어졌다<sup>32)</sup> 예를 들면 1466~1467년 조선은 명나라의 요청에 따라 군사를 내어 건주위 동산부와 이만주부를 함께 토벌하기도 했다.<sup>33)</sup> 이로 인해 건주여진은 큰 불만을 품어 이후 몇 년 동안 조선의 국경을 여러 차례 침범하게 되었다.<sup>34)</sup> 조선은 그 교란을 참다 못해 명나라에 상서하여 명나라가 조정해 주기를 원하였다. 동시에 여진 내부 안에서 해법을 모색하던터라 이 시기 동청례가 발탁되어 중용되기 시작하였다. 동청례는 향화 여진의 수령인 동소로가무의 둘째 아들로, 향화 여진인 가운데 벼슬이 높았다.<sup>35)</sup> 그는 무과에 급제하여 직위를 얻

酋長一等，子青周二等。”

32) 王臻, 『朝鮮前期與明建州女真關係研究』, 北京: 中國文史出版社, 2005, 127~131쪽.

33) 『성종실록』 권 5, 성종 11년 5월 1일(戊寅) “因建州三衛都督董山, 李滿住等逆天背恩, 累犯邊境, 朝廷命將出師, 往彼征勦, 慮其逃遁, 特勅爾國, 令發兵截其後路, 爾先王乃能仰遵勅旨, 令人直抵巢穴, 擒斬逆賊李滿住等, 遣使告捷, 具見忠順之誠. 今三衛殘虜, 輸情服罪, 照舊朝貢, 乃敢聲言, 要往爾國, 報復前讎.”

34) 『성종실록』 권 52, 성종 6년 2월 8일(丁亥) “成化十年十二月二十二日, 建州衛野人約三千餘騎, 突至本國平安道, 理山鎮, 搶擄野處人畜, 十一年正月二十三日, 又寇昌城鎮管內昌洲口子, 本月二十五日, 又寇碧潼鎮管內碧團口子, 此賊世擾本國邊境. 又自成化三年, 本國奉勅, 攻斬李滿住父子等後, 滿住黨類謀欲報復, 窺視間隙, 今者嘯聚同惡, 誑誘火刺溫, 毛憐衛諸種, 眾至數千, 恣行兇獷, 非徒陵蔑本國, 亦是不敬朝廷. 竊計此賊為謀既久, 鳩合亦廣, 勢不便止, 煩為聞奏, 明降戒飭, 本賊戢兵守分, 刷還所搶人畜. 倘或不悛, 似前寇盜, 當職欲要著令邊將相機, 乘勢出兵, 追討直搗巢穴, 以懲奸猾.”

35) 『성종실록』 권 289, 성종 25년 4월 28일(丙戌) “淸禮, 向化人, 仕於朝, 登武科, 材力甚武, 善騎射擊毬.”

었고, 그의 말타기와 활쏘기로 조선의 무신들 중에서 두각을 나타냈다.<sup>36)</sup>

1496년(연산 2) 8월, 동청례는 조선 경차관으로 건주삼위(建州三衛)에 출사하였다.<sup>37)</sup> 동청례는 건주위 여진 족장과 교섭하여 여진과 조선왕조가 평화롭게 지내도록 설득하였고, 달한(達罕)은 여러 번 국경을 어지럽힌 것은 조부와 처가들의 복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였다.<sup>38)</sup> 동청례의 노력에 달한은 설득당하고 이해득실을 따져보고나서 조선에 귀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달한은<sup>39)</sup> 동청례와 환담을 나누고 나서 여진의 족장인 부리개(夫里介)의 집에 함께 갔고,<sup>40)</sup> 두 사람의 설득을 통해 부리개는 납치한 인구를 돌려주기로 하였다. 동청례는 건주위 여진 족장과 합의를 보았으나 건주좌위와 건주우위의 족장은 동청례를 예우하지 않았다.<sup>41)</sup> 동청례가 건주위 수령 달한을 유세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건주 좌우 양위는 여전히 조선왕조를 적대시하고 있음을 통해 동청례 일행이 순탄치 않음을 알 수 있다.

1497년(연산 3) 10월, 동청례는 두 번째로 건주위에 파견되었다. 동청례는 연산군에게 상서한 글에서 건주위 여진의 족장 달한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동청례를 맞이하며 예의를 갖추었다.<sup>42)</sup> 여진 수령의 순복이 여진인의 국경 통

36) 『성종실록』 권 54, 성종 6년 4월 20일(戊戌) “幸慕華館閱武, 命放火, 習槓習杖, 試武臣毛毬·三甲射, 賜能中者童清禮等九人, 弓矢有差矣.”

37) 『연산군일기』 권 16, 연산 2년 8월 10일(甲申) “遣童清禮, 李山玉等於三衛……且勿違敬差官, 令觀察使親往.”

38) 『연산군일기』 권 19, 연산 2년 11월 1일(甲辰) “其後朝鮮又不意興兵, 斬吾祖父若弟, 掠吾妻子家人并五十餘人而去. 吾由是, 怨不自勝, 再寇大國邊地, 爲祖父報讎也……答曰, 野人部落雖多, 朝廷亦豈謂盡是盜賊乎? 其中必有不爲盜賊者. 雖欲暴露其情, 無路得達, 故遣臣審其情偽. 今爾等之言如此, 正合朝廷遣臣之意. 爾等常慮我朝加兵, 凡所儲財穀, 埋於山穀, 不能儲之於家. 爾等能歸順, 更無竊發之心, 則可得安居樂業矣, 將誰畏哉? 達罕等皆叩頭曰, 吾等之意, 誠如是也. 我等今欲歸順朝廷, 以修貢獻, 須將此意轉啟.”

39) 『연산군일기』 권 19, 연산 2년 11월 1일(甲辰) “吾等之意, 誠如是也. 我等今欲歸順朝廷, 以修貢獻, 須將此意轉啟.”

40) 『연산군일기』 권 19, 연산 2년 11월 1일(甲辰) “達罕與臣, 偕往金山赤下所居裏酋長王夫裏介家, 達罕語夫裏介曰, 使臣以三衛開諭及前日涓原被虜人物刷還等事委來……二日程許兀狄介處, 亦有賣者. 當使山赤下同犯人, 奔往刷還.”

41) 『연산군일기』 권 21, 연산 3년 1월 10일(壬子) “童清禮入歸時, 建州衛酋長達罕則親自出迎, 備陳誠款, 頗有效順之狀, 故欲慰其意, 賜給物件已曾下送, 左右衛酋長等, 其時亦各遣人迎候, 而獨達罕處賜物, 則左右酋長等不無失望, 亦依達罕賜物下送.”

42) 『연산군일기』 권 28, 연산 3년 5월 7일(乙亥) “建州衛野人趙三波之子八人各攜酒一器, 飲臣曰, 三衛酋長既歸順, 我輩亦欲歸順. 臣給綿布各一匹, 紙各一卷, 此輩世世爲邊患者也. 初三日, 行三十裏許, 有野人家十餘, 即羅吾將所居. 又行二十餘裏, 有五十餘家, 即達罕所居. 未至十裏, 達罕子甫羅多及

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다.<sup>43)</sup> 이러한 상황에 달한도 어쩔 방법이 없었다.<sup>44)</sup> 여진인은 여전히 조선왕조 경내에 들어가 약탈을 거듭하여 서쪽 국경지대에서 사는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조선은 다시 건주위에 동청례를 보내 여진과의 관계를 조정하였다.<sup>45)</sup> 동청례가 예물을 가지고 건주위에 갔지만 여진이 납치된 인구를 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 조선왕조는 아주 불만스러웠다.<sup>46)</sup> 조선이 더욱 신경 쓴 것은 여진에게 빼앗긴 사람의 수였으며, 이는 국경통치의 안정에 영향이 있는 것이었다.<sup>47)</sup>

동청례의 출사는 여진과 조선의 재수를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에 건주삼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1442년(세종 24), 건주삼위 형성<sup>48)</sup> 중이들은 모두 동청례와 혈연관계가 있는 여진 족장들이었기 때문에 동청례는 자신의 특수한 신분을 이용하여 건주삼위의 국경에서의 움직임을 파악하였다.<sup>49)</sup> 동청례는 출사 과정에서 여진의 거주지와 호수를 상세히 기록하여 조선왕조가 변경의 여진 상황과 동향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sup>50)</sup>

---

左衛酋長士老等率十餘人，皆攜酒來迎。行五裏許，達罕率麾下三十餘人，著笠衣綠紗胸背，令人吹螺來迎，馬上以銀杯酌酒饋臣，先導至其家。臣令達罕設長床，置書契於其上。達罕與群下百餘人皆四拜後，東西列坐，饋宣醢，頒賜物。”

- 43) 『연산군일기』 권 23, 연산 3년 5월 10일(辛亥) “今遣淸禮，一以探道路紆直，一以知彼人情偽。近來野人不服，頻來作賊，西方之民被耗久矣。今若因此歸順，無復有邊警，則爲益多矣。”
- 44) 『연산군일기』 권 25, 연산 3년 7월 7일(丙午) “我等名雖酋長，實無統屬，何能縛致？”
- 45) 『연산군일기』 권 23, 연산 3년 5월 28일(己巳) “淸禮稱宣慰官……且賜物於三衛酋語之曰，我於年前使來時，汝等各遣麾下，敬迎朝命，誠心效順，殿下嘉之，特賜物。但虜來人口，一不刷還，前約七歲童子，待暖刷還，而又負之，繼而仇郎浦洞內新造者皮船五只，具楫埋置，爲我人所發，以此不信汝等歸順之言。”
- 46) 『연산군일기』 권 19, 연산 2년 11월 3일(丙午) “三衛酋長誠心效順，今朝廷已知近日犯邊非爾酋長所爲。爾酋長更加效力，盡令刷還被虜人口，則朝廷必大加賞賚，撫恤之恩，必倍於前。”
- 47) 『연산군일기』 권 19, 연산 2년 11월 1일(甲辰) “各衛酋長裨將，裏將之名曰，建州酋長李達罕，裨將李巨右，裏將指揮王三下，指揮趙加乙豆。左衛酋長童都論，裨將僉知童夫堂介，童老同，童處，永巨，裏將蔣馬可裏，童車音波，趙馬吾阿，高甫乙赤羅，吾川接，裏將馬可古多，丐羅城裏將浪還四。右衛酋長童甫花土，裨將都督童羅吾章，童舍吾兒，裏將童其音波。歧州衛酋長王夫裏介，裨將王舍老。”
- 48) 『성종실록』 권 162, 성종 15년 1월 19일(丁未) “三衛內右衛，則甫花土，羅下二酋長分統，前者中衛李達罕，左衛吐老，右衛羅下。”
- 49) 『성종실록』 권 177, 성종 16년 4월 27일(戊寅) “三衛酋長子弟則許於平安道上來，非子弟則由永安道入來。今者上來人，雖稱士老麾下，其實自青岩裏逃去而檢天裏止接者，其官教亦皆借於他人者也。且自三衛至永安道，道路險遠，加以地廣人稀，或畏其剽竊，故三衛人不肯由此路矣。達罕，士老，甫花土皆臣切族，故熟知其間之事。”

조선의 향화 여진인 동청례의 중용은 여진정책 전환에 대한 고려에서 비롯되었다. 동청례는 조선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 건주위에 출사하여 적대관계를 양호관계로 전환되어 향화 여진인 동청례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려는 조선의 의도는 상부상조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동청례의 건주위 일행은 여진과 조선의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지만,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여진과 조선왕조의 갈등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향화 여진인은 적극적인 작용이 있었지만 효과는 미미했고, 동청례 사후 여진과 조선 사이의 평화도 다시 깨졌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건주여진과 조선왕조 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향화 여진인의 노력은 무시할 수 없다.

### 3) 여진인의 귀순 반복

맹가첩목아·범찰·동산 등 여진 족장들에 대한 잇따라 초무 실패 후 조선은 동어허리의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택하면서도 전적으로 신임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동소로가무의 무와 동청주·동청례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났다. 세종은 동소로가무이 상경하여 수입과 감독을 편하게 해주기를 원했고, 동소로가무는 회령진을 떠나기를 거부했다.<sup>51)</sup> 이후에도 동소로가무의 아들들은 회령을 떠나지 않았고, 동청례는 조선으로부터 수직을 받고도 회령진으로 돌아와 살았다.

동소로가무 여러 직책을 겸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직위는 중추에 이르렀으나, 그는 자신과 가족의 거취에 대해 자유를 장악할 수 없었다.<sup>52)</sup> 조선은 국경 방어에 토보를 설치하였는데 “육진” 밖의 여진과 경내의 여진이 연합하

50) 『연산군일기』 권 28, 연산 3년 10월 7일(乙亥) “行三十裏許, 有野人家十餘, 卽羅吾將所居, 又行二十餘裏, 有五十餘家, 卽達罕所居.”

51) 『세종실록』 권 92, 세종 23년 5월 16일(辛亥) “所老加茂, 野人之有才力者也. 惡其反覆, 使鹹吉道都節制使勅令上京, 授職娶妻, 仍留宿衛, 所老加茂不肯留曰, 父母年踰八十, 臣獨子, 思欲奉養, 聞朝臣有老親者皆令歸養, 何獨於野人不然乎? 因稱病, 或不食以拒之.”

52) 『세종실록』 권 104, 세종 26년 5월 21일(庚午) “童所老加茂以未得率妻而痛悶, 至於墮淚懇請……會寧城內, 已造家居住, 不宜一日出居城外. 若所老加茂率妻欲居其堡……不完土城, 率妻居住未便. 妻則於會寧城內, 造家安接, 汝則互相來往爲便.”

여 난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여진의 왕래와 교류를 엄격히 통제하였다. 동소로가무는 아내를 데리고 회령성에 살았는데 회령진을 떠나려면 조선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그의 아버지 동소로가무와 마찬가지로 동청주와 가족에게도 이동의 자유가 없다.<sup>53)</sup> 심지어 동소로가무가 죽은 후에도 동청주의 어머니는 귀장할 수 없다.<sup>54)</sup>

조선의 향화 여진인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귀순을 번복한 것과 관련이 있다. 1472년(성종 3), 조선은 동청주를 통해 그의 동생인 동아망합와 연락하여 귀순한 여진인을 후하게 대우할 것을 약속하였다.<sup>55)</sup> 동청주의 동생인 동아망와 숙부 보하토(甫下土)는 건주 위할지에 거주했다.<sup>56)</sup> 가족과 자주 만날 수 없어서, 동청주의 어머니는 무단으로 동아망와를 만나러 국경을 넘었다.<sup>57)</sup> 조선은 동청주의 어머니에게 죄를 묻지 않았고, 동청주의 노력으로 어머니는 동아망와와順利롭게 만났다.<sup>58)</sup> 조선에서는 왕래를 허락했지만 경계심이 남아 있고, 동아망와 등은 조선에 입국할 때 인원수와 사유를 자세히 알려야 했다.<sup>59)</sup> 조선 성종 때 동아망와는 회령 옛터로 돌아가 살겠다고 조선에 귀순했다.<sup>60)</sup> 그러나 1481년(성종 12) 될 때까지 회령의 옛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다.<sup>61)</sup> 1495년(연산 2), 동아망은 또 부하들을 거느리고 만포 지역으

53) 『성종실록』 권 21, 성종 3년 8월 3일(丁卯) “童淸周去留亦扈.”

54) 『세조실록』 권 32, 세조 10년 1월 30일(癸未) “父所老加茂葬期已逼, 臣固不可歸, 請令母歸葬. 上不允……童青周今請遣母葬父, 然其母固不可送, 官備葬具, 委其官下於乙巨, 葬之.”

55) 『성종실록』 권 17, 성종 3년 4월 16일(壬午) “今去童淸周同生弟阿伊忘哈, 若自建州衛, 而來欲上京朝見, 厚待之, 勿拘農時, 並其從者上送, 從者太多, 則驛路有弊, 約定十人以下, 上送.”

56) 『세조실록』 권 32, 세조 10년 1월 29일(壬午) “行三十裏許, 有野人家十餘, 卽羅吾將所居. 又行二十餘裏, 有五十餘家, 卽達罕所居.”

57) 『성종실록』 권 23, 성종 3년 10월 12일(乙亥) “甫下土率青周弟阿伊亡可居其部.”

58) 『성종실록』 권 28, 성종 3년 10월 12일(乙亥) “當初斡朵裏等移去建州時, 汝父獨留會寧, 誠心效力, 故國家待之極厚, 在北門者, 無與爲比……汝母爲人所誘, 邊將招之, 入城而不來, 故令軍士取來, 汝母挈汝, 遂往建州……先王憐淸周之故, 亦不之罪, 亦非馬仇音波所告也.”

59) 『연산군일기』 권 28, 연산 3년 5월 18일(己巳) “語其兄阿亡介曰, 汝爲世酋之種, 汝母卽我國之人, 汝亦生長我土, 而妄投遠地, 汝子弟仍居本朝, 勤勞國事……汝所居, 密邇中朝之境, 汝所出入, 必細知之. 恐或奸細之人構於中朝, 朝鮮誘置邊地雲爾, 則我國無辭以對, 以是爲難. 其未盡條件, 令觀察使臨時措置.”

60) 『성종실록』 권 23, 성종 3년 10월 5일(戊辰) “上謂阿亡哈曰, 汝從逆虜, 背歸蒲州, 罪莫重焉. 然悔悟來朝, 其誠可嘉.”

61) 『성종실록』 권 125, 성종 12년 1월 11일(丙戌) “阿忘介, 去壬辰年出來, 國家待之甚厚. 其言曰, 明年會寧城底舊土, 還來居生, 效力事. 入歸後, 至今不來.”

로 가려고 했다.<sup>62)</sup> 조선은 여진인이 정착한 뒤 세력을 키워 국경의 안전을 위협할 것을 우려해 동아망하의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sup>63)</sup> 이러한 경계와 불신은 여진인에 대한 정책에서도 드러난다.<sup>64)</sup> 동청례가 건주여진에게 출사하자 국경의 안정을 위해 연산군과 신하들은 여진에 대한 정책을 의논했다.<sup>65)</sup> 여진인이 거지로 항복할 것을 우려하여 조선은 여진정책을 은혜와 위엄을 병행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이익으로 유인함과 동시에 군사로써 위엄을 부렸다.

#### 4) 향화 여진인의 두 나라에 귀속될 수 없는 딱 한 신분

동청례는 줄곧 향화 여진인의 거류한 문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 여러 차례 건의를 상소하였다.<sup>66)</sup> 그러나 동청례의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선은 여진을 변경 불온의 근원으로 시종일관 여기었다.<sup>67)</sup> 조선의 신하들도 동청례의 신분을 인정하지 않았고, 동청례는 여러 차례 증자를 저지당했다.<sup>68)</sup> 조선의 신하들은 동청례가 공로가 없으며, 납치한 인원을 되돌려 받

62) 『연산군일기』 권 19, 연산 2년 11월 2일(己巳) “臣兄童阿亡介語臣雲雲，吾父童所老加茂於世宗朝受會寧兼牧官印，領百姓。凡防禦之事盡心爲之。故其時絕無邊患。父死後吾持此印，移居於夫乙乎裏地面。其後大國召我還居會寧，適其時違期，未遂來居。吾系本大國人，請奉父所受之印，並率麾下百姓，來居於滿浦越邊皇城坪，作爲藩籬，雖吾死後，吾子孫當世世繼業。”

63) 『연산군일기』 권 19, 연산 2년 11월 2일(己巳) “阿亡介若許來居，雖効力無疑，誠如克均之計，阿亡介身死之後，其子孫寔繁，相踵而來，勢必彌漫……世世誠心歸順，則可矣，野人人面獸心，不足盡信。強則狗盜，弱則來服，其天性也。萬一安業居之，滋息過倍，此國家腹心之疾。”

64) 『연산군일기』 권 19, 연산 2년 11월 3일(丙午) “今觀清禮所啟之辭，又按往來地圖，達罕出迎於數日之程，敬奉使命……但恐大兵一舉，玉石俱焚耳……以觀其勢然後，更議攻守之策何如?”

65) 『연산군일기』 권 19, 연산 2년 11월 4일(丁未) “持平薑叔突啟，命加童清禮資。清禮之言何可盡信? 姑待刷還虜口，然後詳知其功而加資，未爲晚也。”; 『연산군일기』 권 19, 연산 2년 11월 5일(戊申) “掌令李自健，正言趙元紀啟，童清禮無刷還之功，徒以其所言而加資，請與高崇禮並改正。”; 『연산군일기』 권 19, 연산 2년 11월 6일(己酉) “掌令李自健啟，童清禮有何功，而加資乎?”

66) 『연산군일기』 권 12, 연산 2년 2월 4일(壬子) “訓鍊院習讀官童清禮上疏曰，臣父自少盡忠效誠，不懈防禦，深處野人，三十餘年不敢近境。祖宗朝議臣父功，位至正二品，兼授會寧等處監牧之任。及臣父死，野人犯邊，邊患不絕。臣雖後生，豈不知敵人之情，邊境之弊……自祖宗朝向化侍朝者多，而今則少。臣意以謂，富寧，鏡城向化人等，擇其可用者，許令侍朝，則庶不逃去。”

67) 『연산군일기』 권 12, 연산 2년 2월 9일(丁巳) “童清禮上疏雲請許向化人侍朝，大臣有以爲不便者……夫平安，永安兩道防禦一也，而以永安爲歇者，城底野人預通聲息，故易以爲備耳。令向化侍朝者，欲其城底野人勢相維也。今勿許侍朝，彼人寧無缺望?”

68) 『연산군일기』 권 19, 연산 2년 11월 4일(丁未) “持平薑叔突啟，命加童清禮資。清禮之言何可盡信?”



은 후에 동청례에 증자할 것을 건의했다. 연산군은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아 불만을 샀다.<sup>69)</sup> 동청례의 대우는 조선인과는 매우 달랐고, 그의 향화인 신분은 이후 직위의 승진에 아주 큰 저지를 받았다.<sup>70)</sup> 조부 동어허리와 아버지 동소로가무와 만형 동청주의 처지와 비슷하게 동청례도 조선 경내에 제한되어 있어 일반 상황에서 외출을 못하게 하였고, 특히 회령으로 귀향을 못하게 하였다.<sup>71)</sup> 성종 때 동청례의 둘째 형인 아망합가 건주위에 있었는데, 성종은 동청례가 건주위 출병 소식을 아망합에게 알릴까 걱정되어 회령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동청례에 직위를 수임 때 조선의 문신들이 동청례의 신분을 인정하지 않자 성종은 재삼 고려한 후 동청례 훈련원(訓練院) 습독관(習讀官)을 수임하게 하였다. 그러나 습독관 임기 만료 후 관례대로 동방직, 감찰 또는 낭관 직을 수여해야 하지만 동청례는 다른 벼슬자리를 주었다.<sup>72)</sup> 조선의 동청례에 대한 직위 억압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 등 일련의 향화 여진인에 대한 불공정은 훗날 동청례가 조선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중종 때 여진은 날로 강성해져서 조선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sup>73)</sup> 게다가 조선 양반들이 변민들에게 초피 등을 징수한 탓에 변민은 국경의 여진인과 무역을 통하여 초피를 바꾸어야만 했다.<sup>74)</sup> 여진이 강성해지자 변민들을 인신매매할 뿐만 아니라 조선 국경군대를 강제로 납치하는 상황도 생겨났다.<sup>75)</sup> 국경에서 계속되는 위기로 중종은

姑刷還虜口，然後詳知其功而加資，未爲晚也。”；『연산군일기』 권 19, 연산 2년 11월 5일(戊申) “掌令李自健，正言趙元紀啟，童淸禮無刷還之功，徒以其所言而加資，請與高崇禮並改正。”；『연산군일기』 권 19, 연산 2년 11월 6일(己酉) 掌令李自健啟，童淸禮有何功，而加資乎？”

69) 『연산군일기』 권 19, 연산 2년 11월 10일(癸丑) “正言趙元紀曰：童淸禮加資事，憲府論旨至當而不允。若果有功，后虽加資，未爲晚也。今无显功，而濫加賞資未便”

70) 『연산군일기』 권 38, 연산 6년 6월 3일(乙酉) “童淸禮上言求職。議者雲，可授衛將等職。夫衛將之任，典禁兵，殿最僚屬，其任重矣，不可授向化之人……淸禮事，不允。”

71) 『성종실록』 권 96, 성종 9년 9월 1일(己未) “童淸禮受假將掃墳於其鄉會寧。今聞中國有請兵之舉，淸禮之兄阿亡哈在建州衛，若相通，則恐聞泄事機，請勿遣。”

72) 『성종실록』 권 273, 성종 24년 1월 8일(甲戌) “淸禮雖占科名，然其父童所老加茂始革面來款，其獐狎之習，至其子未盡革，臣等差與爲伍……淸禮雖仕滿，決不可任此職也……向化雖久，眾議如此，況於習讀官不關有無乎……既登武科，則爲訓練習讀固其宜也。”

73) 『중종실록』 권 1, 중종 1년 9월 28일(甲辰) “以皮物貿易事，北道之民，受弊太甚，所持牛馬，盡輸於城底野人，野人又結婚於北虜，野人強盛，而我國之人，日益困弊。”

74) 『중종실록』 권 6, 중종 3년 8월 16일(辛巳) “多定貂皮等物於邊民，邊民得之無由，必以牛隻，貿易於野人。”

여진에 대한 정책 조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동청례에 대한 신뢰도 전조만큼 좋지 않았다. 동청례와 신복의(辛服義) 등은 모반을 꾀하여 두 달 넘게 걸친 조사 끝에 동청례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중종 3년 말에 능지처사하고, 아내는 노비로 삼았다.<sup>75)</sup> 이번 변절 사건은 동청례와 신복의 등이 사사로이 화살촉을 만든 것이 근원이었다. 동청례의 진술에 의하면, 그는 직위의 거둬진 떨어짐으로 인해 원한을 품었다고 한다.<sup>76)</sup> 동청례의 처형 결과는 여진인들의 강한 불만을 불러일으키며 번번이 조선왕조 국경을 침범하였고, 조선의 여진 정책도 강경하게 진행되었다.

동청례는 건주여진과 조선왕조와의 우호관계를 강화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건주여진과 조선 사이의 갈등은 오래되었고, 향화 여진인은 우호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효과는 미미했다. 동청례가 죽은 후 여진과 조선왕조 사이의 짧은 평화도 다시 깨졌다. 동청례는 조선에서 여진부락을 왕래하면서 여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많이 얻었다.<sup>77)</sup> 그러나 동청례가 죽은 후 향화 여진인 중에서 다시는 조선과 여진 사이를 오갈 수 있는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다.<sup>78)</sup> 동청례는 조선과 여진 사이의 교류 역할을 담당한 핵심인물로서 조선의 북방국경 문제와 직결된 건주여진과 다른 여러 여진부락 간의 왕래로 북방국경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동청례 처형 이후 조선왕조는 여진에 대한 정책을 더욱 강경하게 펼쳤으며, 동청례와 같은 인물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 조선은 그 이후로 여진의 각 부족의 행방과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75) 『중종실록』 권 8, 중종 4년 7월 20일(庚戌) “北道人潛賣人物於城底野人, 已爲成風, 吾民日漸減少, 至爲可慮.”; 『중종실록』 권 15, 중종 7년 4월 21일(乙未) “野人虜我軍十一人而去.”

76) 『중종실록』 권 7, 중종 3년 12월 3일(丙寅) “賊臣辛服義, 童清禮等, 包藏禍心, 結僞煽亂, 假托盲妖, 讖筮禍福之說, 以是而動搖人心, 以是而謀危宗社……其首服義, 清禮凌遲.”

77) 『중종실록』 권 7, 중종 3년 12월 3일(丙寅) “清禮供招, 初不得參靖國之功, 又爲降資, 心懷憤怨, 聽從服義凶謀, 推衛聖壽, 妖言惑眾, 謀危宗社.”

78) 『중종실록』 권 12, 중종 5년 8월 13일(丙申) “童清禮在向化中, 位最高, 自奉諭書, 歸來彼土之後, 彼人皆知其爲人. 城底野人之交通六鎮人民者, 雖細微之事, 亦皆知之.”

79) 『중종실록』 권 60, 중종 23년 2월 1일(癸卯) “今方有事變之時, 備邊司與知邊事, 知虜情及兩界形勢者, 少.”

#### 4. 명나라가 향화 여진인 정책을 소홀히 한 이유

명나라와 조선왕조가 여진에 대한 태도를 달리한 것은 양국의 지리적 위치·시대적 배경·국토 개념·외교 정책과 관련이 있다. 명나라 초기에 무력 정벌을 하지 않는 특징인 평화외교정책은 실행한 바 이웃과 잘 지내고, 전쟁을 피하고, 평화 공존과 선린 우호를 선양하였다.<sup>80)</sup> 명태조 주원장은 명나라를 건국한 후 전국 통일을 완성하지 못했고 국내의 상황이 엄중하여 외교적으로 무수원이 정책을 펼쳤는데, 원나라의 무력협박을 굴복시키는 외교수단에 비해 명나라는 외부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이웃나라를 잘 사귀는 경향이 있었고, 평화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건국기반으로 여겼다. 우한(吳翰) 선생은 명태조의 외교이념을 “무연고 전쟁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타국의 침략을 단호히 용납하지 않고, 국경 지켜 백성이 안정하게 살 수 있게하는 주장”이라고 여겼다.<sup>81)</sup>

조선의 고려정권은 원나라 말기의 정치불안에 따라 복잡한 변화를 일으켜 친원집단이 타격을 받자 고려왕조는 명나라와 본격적인 외교관계를 맺었다. 고려왕조와 그 뒤를 이은 조선왕조는 명나라와 친교를 맺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북진”하여 명나라의 세력이 동북지방에 깊숙이 침투하기 전에 조선 북부지방으로 영토를 넓혔다. 주로 여진을 유인하여 향화 여진인으로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왕조 통치자들은 여진의 지리적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명나라의 초기 명나라 국내가 안정되지 않았고, 동북을 돌볼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먼저 동북의 여진에게 초무하는 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여진의 귀순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서 명나라 초기에 명나라에 복종하면서 조선에도 좋은 관계를 보이는 이속(二屬)의 여진이 등장했다. 홍무 년간에 요동 지역을 완전히 통제한 후, 여진의 영속 문제는 점차 명나라 통치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양국 관계는 점점 악

80) 万明, 「中朝图们江界河形成源流略考 - 以朝鲜王朝的东北方经营为中心」, 『中國史研究』 4, 2010, 27~57쪽.

81) 吳翰, 『朱元璋傳』, 陝西師範大學出版社, 2008, 152쪽.

화되었다. 그러나 명나라는 말로만 조선에게 경고했을 뿐 조선왕조 복진을 막기 위한 실제 행동은 하지 않았다. 조선왕조의 “북진”은 잠시나마 억제되었지만, 실제로 조선의 초무 정책은 멈추지 않았고, 향화 여진인은 조선왕조 초무 정책의 산물이었다.

명나라는 동북 여진에 대한 전통적인 구속 통제를 실시하고 초무와 배치를 강화하여 변방을 공고히 했다. 위소를 설치하여 직접 관원을 파견하지 않고 여진 부족 족장이 관할하게 하였으며, 명나라 통치자들은 여진 부족 족장에게 벼슬을 주고 명나라에 예속하여 제때에 조공하게 하였다. 명나라 선덕 말기에 국력이 점차 쇠락하고 동북 변방 지역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경영 태도를 잃어 흑룡강성 노아간 등지에 대한 순시 제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점차적으로 여진 여러 부족에 대한 적극적인 초무 정책을 포기하였다. 이와 달리 조선왕조는 시종일관 여진과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건국 후에는 고려왕조의 영토인 “북진” 계획을 계승하여 여진에게 초무정책을 펼쳤다. 알타리부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두만강 중하류 일대의 여진인 수가 줄어들었고, 이는 조선왕조가 두만강 연안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조선 세종 말기 여진의 세력이 쇠락한 틈을 타 압록강, 두만강 지역으로 확장하는 한편 우대조치를 취하여 조선 동북 및 서북지역에서 여진을 대대적으로 초무하였다. 조선 함경도 지역에 경원(1417년)·종성(1431년)·회령(1434년)·경흥(1434년)·온성(1441년)·부녕(1449년)를 설치했고 변보·연대를 세우고 장성을 쌓으며 실변으로 백성을 이주하여 조선 북방 “육진”을 개척하였다.<sup>82)</sup> 명나라가 조선의 향화 정책을 소홀히 한 직접적인 결과는 두만강 유역의 중하류 우안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을 상실하고, 두만강이 명나라와 조선왕조의 국경 하천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명나라는 여진과 조선을 번속으로 삼았다.<sup>83)</sup> 그러나 여진과 조선에 대한 태도는 달라하였는데 조선과 명나라는 모두 여진을 오랑캐로 여겼다. 조선이 소중화(小中華)와 의례지국을 자처한 것은 중원왕조를 추앙하였음을

82) 刘阳, 「朝鮮王朝前期的北方沿江行城建置及其防禦功能」, 『世界歴史』 3, 2017, 82~159쪽.

83) 王臻, 「角色認同的轉變與重建朝鮮王朝與明清封貢關係的變遷」, 『世界歴史』 2, 2018, 60~157쪽.

알 수 있다. 오랑캐 여진과 원방 조선을 대할 때 명나라의 태도가 달랐던 것도 설명이 됩니다. 명나라에서는 양자의 사적인 의사소통에 반대했지만, 통치 중심지가 여진과 멀리 떨어져 있고, 여진이 조선왕조와 더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왕조와 여진 양쪽이 국경 무역, 인적 왕래 등 의사소통이 불가피했다. 또한 명나라의 향화 여진인에 대한 홀대는 조선이 적극적으로 여진을 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조선은 여진 초무를 통해, 향화 여진인의 거주 지역을 장악하고 통제했다.

## 5. 맺음말

향화 여진인 동청례 가문은 명나라 여진과 조선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건주여진과 조선왕조의 관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로서 특수한 신분이 조선왕조에 의해 이용되었다. 두만강 지역 여진의 인구와 활동범위를 살피고 건주여진의 동향과 내부정세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조선과 건주여진의 관계가 긴장할 때 족속 신분으로 여진을 달래기도 했다. 동맹가첩목아는 부족을 이끌고 요동지방으로 이주한 후, 일부 알타리부 여진들이 조선에 머물면서 조선왕조에 초무해 향화 여진인이 되었다. 조선을 향한 귀속은 동맹가첩목아 남쪽 이전의 지시일 뿐만 아니라 현실 환경에서 생존의 난제에 직면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향화 여진인 동청례 가문의 귀속은 조선왕조의 그 당시 대여진 정책과 상부상조한 것이다. 동청례 가문과 조선왕조에 남아 산 여진인은 수십 년간의 이동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산에 종사하고 생활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다. 조선왕조는 안정된 생활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식량·경작지와 거처 등 생필품을 하사했다. 조선에게 귀속한 동청례 가문의 현지 영향력은 국경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고, 동북쪽의 울타리가 되어 외적을 막아낼 수 있었다.

조선의 향화 정책의 주요 대상이었던 동청례 가문의 활동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다. 동청례 가문은 동청례의 백조부인 동맹가첩목아와 함께 아목하

유역에 이주하고 정착하여 조선 동북쪽의 울타리가 되었다. 동청례의 조부인 동어허리는 세종 22년, 조선에 귀순하여 여진인을 회유하고 정착시켜 국경에 있는 여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경의 여진 동향을 파악하였다. 동청례의 아버지인 동소로가무는 조선왕조에 회령진을 설치하면서 자신의 거처와 땅을 스스로 바쳤다. 조선왕조가 북방 “육진”을 설치한 후 “육진”밖에 거주하는 여진들을 견제할 실력 있는 여진 족장들이 필요하게 되자, 동소로가무와 그 아들인 동청주, 동청례가 잇따라 중용되었다. 동청례 세대에 이르면 여진의 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자신분으로 양쪽의 사이도 조절하였다. 조선의 연산군과 성종은 건주여진과 수호하려 하였고, 건주여진의 내부정세를 더 잘 알기 위해 동청례를 두 차례에 걸쳐 건주삼위에 파견하였다. 종종 때 여진에 대한 정책이 조정되면서 동청례가 모반사건에 연루되어 능지처형을 당했다. 이 사건은 대여진 정책을 강경하게 대항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하였다. 종종 후기에 여진이 국경을 침범하여 조선의 변민들이 피살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조선왕조와 여진의 관계는 대립과 원한으로 이어왔다. 이 시기에는 여진의 각 부족뿐만 아니라 ‘육진’ 밖의 여진도 다른 시기보다 더 번성해졌다. 그러나 향화 여진인 집단에는 동청례 가문 같은 인물이 없어졌고, 그후 조선왕조나 명나라 모두 여진의 동향과 정세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 분명한 것은 향화 여진인 동청례 가문이 조선왕조와 명나라 국경 안정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명나라와 조선의 대외정책 및 국토개념의 차이는 향화 여진인에 대한 두 나라 태도의 차이에서 나타난다. 명나라는 향화 여진인이 조선왕조에서 진행한 일련의 활동을 홀대하거나 심지어 무시해 버렸다. 조선은 향화 여진인을 적극적으로 회유하여, 향화 여진인을 하나의 국경 군사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경 안정의 역할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동청례 등의 귀속과 공헌은 조선왕조의 완전한 신뢰로 이어지지 않았다. 회령 지역에 거주하는 향화 여진인과 그 가족은 엄격한 감시를 받았으며 마음대로 거주지를 떠날 수 없었다. 조선에 봉직했던 향화 여진인은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시종일관 의심을 받았는데 이것이 아마도 동청례가 결국 반란을 선택한 이유일 것이다. 향

화 여진인 동청례가문은 여진의 속성을 버리고 조선에 귀속하여 봉직하였지만 가문을 번성시키기는 커녕 명나라와 조선의 이용대상이 되고 말았다.

■ 참고문헌

『세종실록』, 『단종실록』, 『세조실록』, 『성종실록』, 『연산군일기』, 『중종실록』  
『명성종실록』, 『명영종실록』

박정민, 『조선시대 여진인 내조 연구』, 경민문화사, 2015.

권영란, 「조선전기 대여진정책과 여진 귀화인 童淸禮」, 『역사와 실학』 62, 역사실학회, 2017.

이규철, 「조선전기 향화 여진인의 활동과 경계인의 삶」, 『역사와 현실』 117, 한국역사연구회, 2020.

이옥빈, 「조선시기 북방계 향화인의 원거주지와 이주시기 - 1609년 울산호적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96, 경남사학회, 2015.

임학성, 「17세기 전반 戶籍자료를 통해 본 귀화 野人の 조선에서의 생활 양상 - 蔚山戶籍(1609)와 海南戶籍(1639)의 사례 분석」, 『고문서연구』 33, 한국고문서학회, 2008.

원창애, 「향화인의 조선정착 사례 연구 - 여진 향화인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37, 동양고전학회, 2009.

한성주, 「조선전기 女眞에 대한 授職政策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王臻, 『朝鮮前期與明建州女真關係研究』, 北京: 中国文史出版社, 2005.

吳晗, 『朱元璋傳』, 陝西師範大學出版社, 2008.

刘小萌, 「明代女真血缘组织哈拉穆昆的动态分析」, 『社会科学战线』 4, 1990.

蔣秀松, 「“杨里人”考」, 『清史研究』 3, 1996.

张晓波, 「朝鮮王朝科举制度研究」, 山東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20.

董万崙, 「朝鮮半岛境内“靺鞨”人再研究」, 『世界歷史』 4, 2001.

万明, 「中朝图们江界河形成源流略考 - 以朝鮮王朝的东北方经营为中心」, 『中國史研究』 4, 2010.

刘阳·金成镐, 「中朝图们江界河形成源流略考 - 以朝鮮王朝的东北方经营为中心」, 『史学集刊』 5, 2015.

刘阳, 「朝鮮王朝前期的北方沿江行城建置及其防御功能」, 『世界曆史』 3, 2017.

王臻, 「角色認同的轉變與重建朝鮮王朝與明清封貢關係的變遷」, 『世界曆史』 2, 2018.



## Research on the Tong Qingli Family of the “Xianghua” Jurchen in the Joseon Dynasty

JIA YUXIN\*

In the early day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Ming Dynasty, the northeastern frontier area had not yet been operated, and the Joseon Dynasty took this opportunity to vigorously appeal to the frontier Jurchen. The appeal to Meng Ge Timur was unsuccessful, and he turned to win over the branch led by Meng Ge Timur, Tong Yuxuli-Tong Qingli. In the eras of King Sejong, Jongjong and Yeonsan of Joseon, the Tong Qingli family served in the Joseon Dynasty, played a subtle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urchen and the Joseon Dynasty, and was not conducive to the management of the Jurchen in the Ming Dynasty. The attachment of the “Xianghua” Jurchen children to the Qingli family is an example of the success of the North Korean policy in the Sejong era of the Joseon Dynasty. The North Korean side needs a leader with the identity of the Jurchen to maintain the relationship with the Jurchen and ensure the stability of the border. environment to develop production. However, the “Xianghua” Jurchen had an embarrassing position in the Joseon Dynasty, and was neither managed by the Ming Dynasty nor respected and recognized by the Joseon Dynasty. The prevention of the Jurchen made it more difficult for the “Xianghua” Jurchen to live by himself.

**Key words:** Ming Dynasty, Joseon Dynasty, “Xianghua”, Jurchen, Tong Qingli

논문투고일: 2023년 10월 18일 || 심사완료일: 2023년 11월 9일 ||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26일

---

\* Ph.D. student, Yanbian University

